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인구감소대책

KRILA-CLAIR 2016한일국제세미나

2016년 11월 30일

정책연구대학원대학 다카다 히로후미

政策研究大学院大学

NATIONAL GRADUATE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Gateway to
Global Leadership*

목차

- 자기소개 등
- 저출산과 인구감소에 관한 현황
 - 인구감소 상황
 - 출산상황
 - 결혼현황
 - 이성교제현황
 - 인구이동
- 지금까지의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 개요
- 지자체의 구체적인 대응 사례 ~치바현 우라야스시
 - “우라야스판 네우볼라” 구축
 - 저출산 대책 기금 사업

자기소개 (주요 이력)

- 1983년 자치성(현:총무성)입성
후쿠오카현청 근무
- 1989년 국세청 아시카가세무처장
- 1990년 니가타현청 근무(과장직)
- 1997년 시가현청근무(부 차장직·부장직)
- 2003년 총무성 정당조성실장
- 2004년 고베대학대학원 국제협력연구과 교수
- 2006년 정책연구대학원대학 교수
- 2008년 총무성 재정조사과장
- 2009년 내각관방 지역활성화 통합사무국 참사관·차장
- 2011년 총무성 정치자금적정화위원회 사무국장
- 2013년 총무성 퇴직
정책연구대학원대학 교수

정책연구대학원대학(GRIPS)

- 국립대학법인(1997년 개교)
- 대학원만 운영하는 대학
목적

“정책 및 정책 혁신과 관련된 연구 교육을 통하여 일본 및 세계의 민주적 통치 발전과 고도화에 공헌”

- 교원수 93명 (외국인 교원 15명)
- 학생수 421명 (올해 5월1일 현재)
(중 유학생 279명, 62개국·지역)
 - 석사과정 284명
 - 박사과정 75명
 - 석사·박사일관과정 62명
- 유학생용 프로그램은 모두 영어
로 교육



무슨 숫자?

128,057천명 → 97,076천명

- 일본 인구의 장래 예측 (2010년 → 2050년)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일본의 장래추계인구)

1.46

- 2015년 합계특수출생률(개요)(후생노동성 “인구동태통계”
※합계특수출생률...1명의 여성이 평생 낳는 자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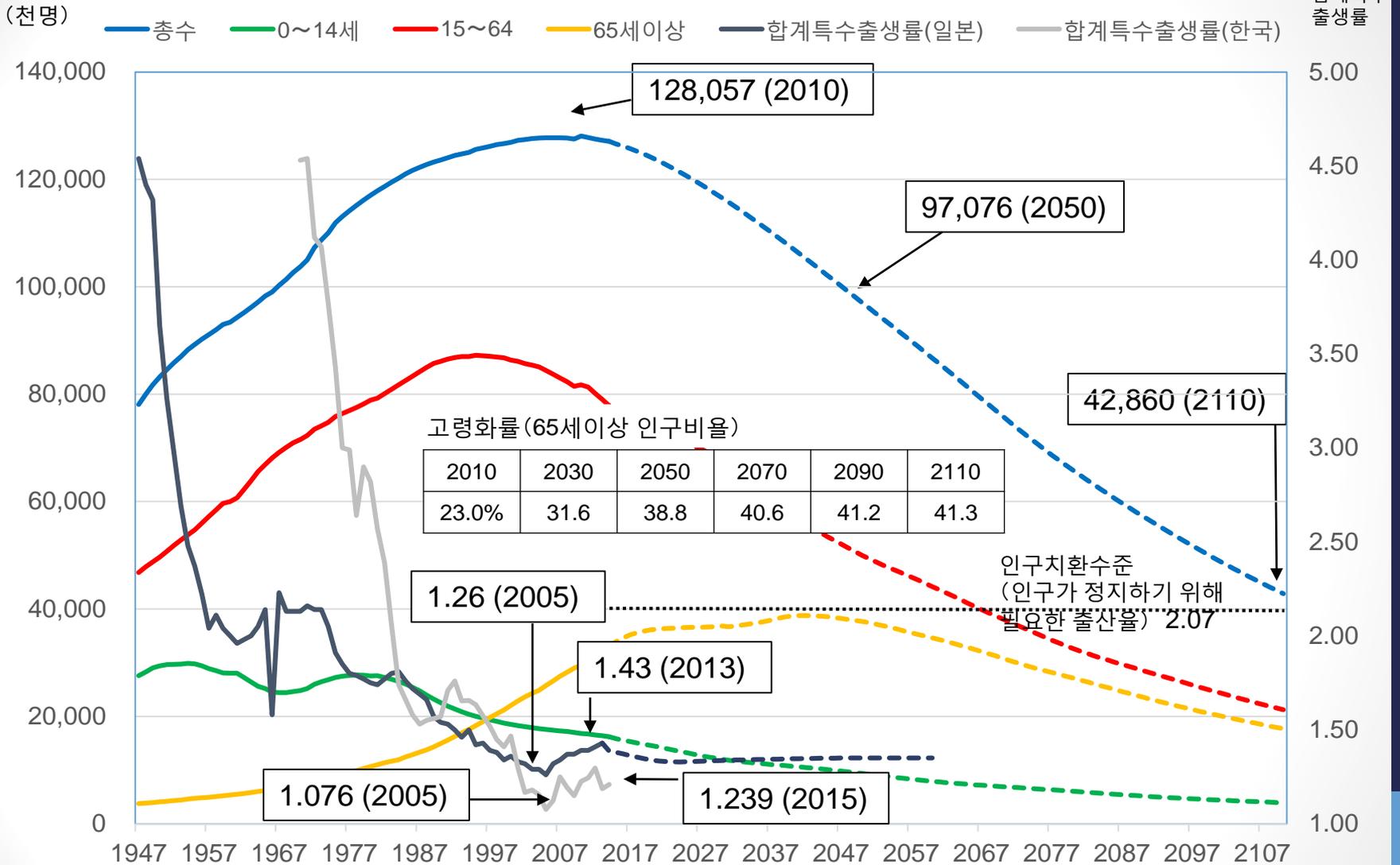
남성 39.7%, 여성 41.1%

- 미혼자로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없는 20대 중에
“필요없다” 는 사람

2.2명 (내각부:2016년도 “결혼·가족 형성에 관한 의식조사”)

- 미혼자·기혼자를 포함한 희망 자녀명수
(동상)

인구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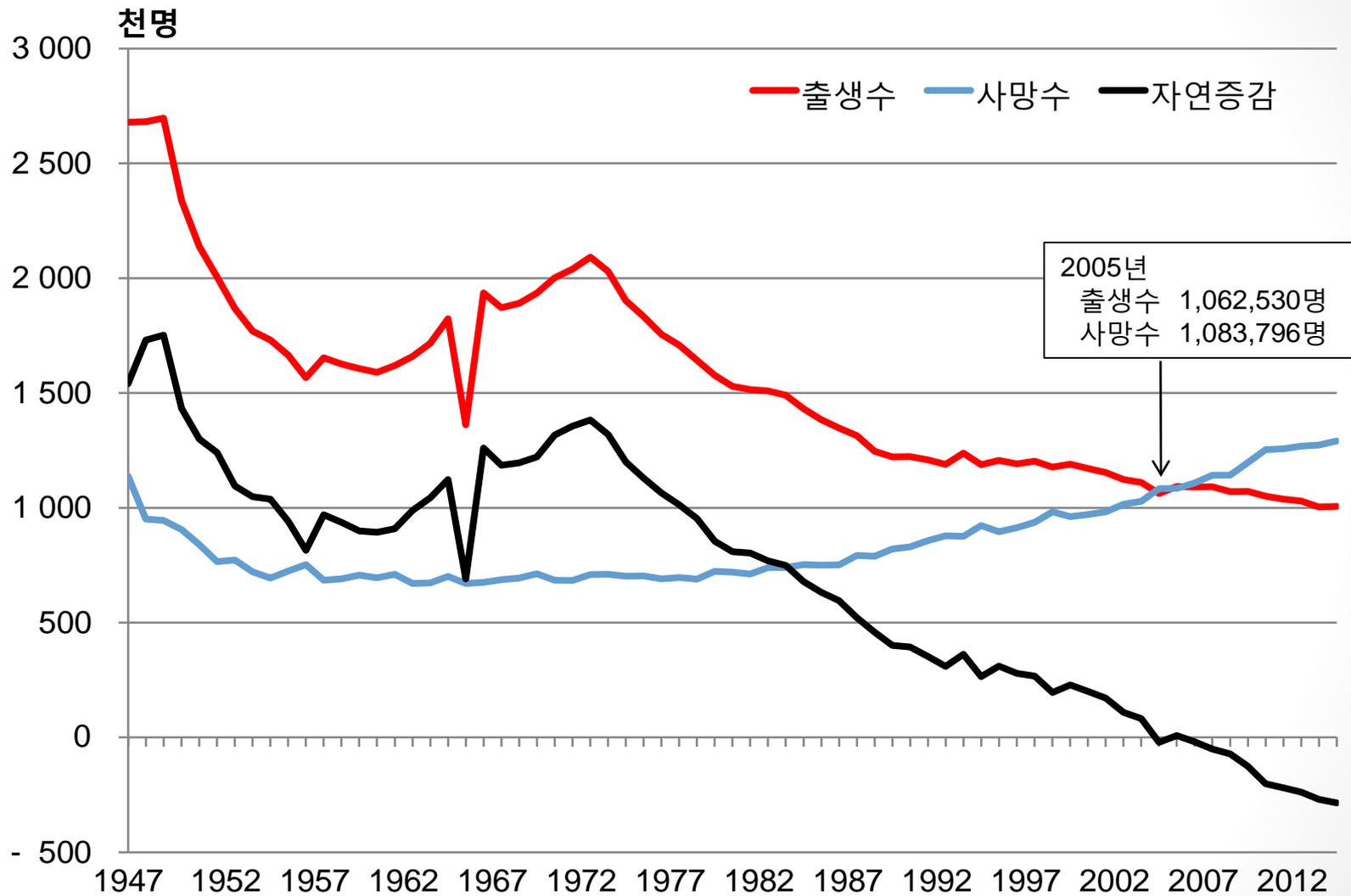


인구: 1950년~2014년은 총무성 통계국 "인구추계", 2015년 이후는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일본의 장래추계인구"(2012년1월 추계)의 중위추계(출생중위·사망중위)에 따름

합계특수출생률(일본): 후생노동성 "인구동태통계"에 따름, 2014년 이후는 "일본의 장래추계인구"(2012년 1월 추계)의 가정치(중위)에 따름

합계특수출생률(한국):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KOSIS) 의 데이터에 따름

출생수와 사망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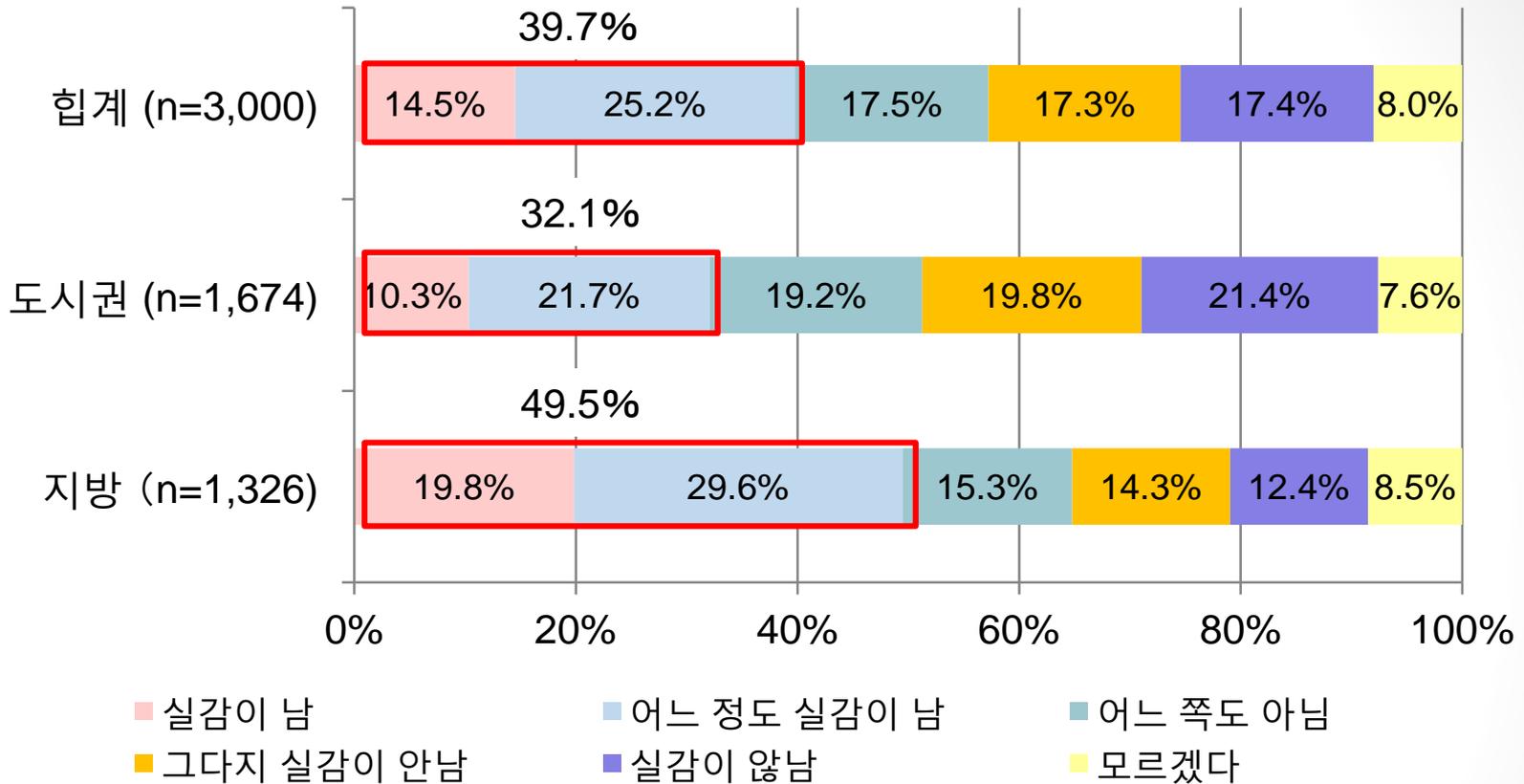


출처: 후생노동성 “인구동태통계”

인구감소가 지역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

- 지역사회와 인프라에 대한 영향
 - 도시와 집락의 기능 저하
 - 도로, 상하수도 등 기존 인프라 유지 곤란
 - 지역의 대중교통 축소
 - 빈집 공터 증가
- 경제와 고용에 대한 영향
 -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고 노동력이 부족해 짐
 - 종업원의 연령구성이 불균형해져 원활한 기능 전승 저해
 - 후계자가 부족하여 사업 계승이 어려워짐
- 농림수령산업
 - 공급자가 고령화되어 후계 부족
 - 경작포기지 증가
 - 삼림의 황폐화 진행
- 의료·복지
 - 현역세대의 사회보장 관련 경비의 부담 증가
 - 의료, 복지, 요양 인재 부족
- 교육
 - 아이들이 규범의식과 의사소통 능력을 익힐 기회 감소
 - 학교의 존속이 어려워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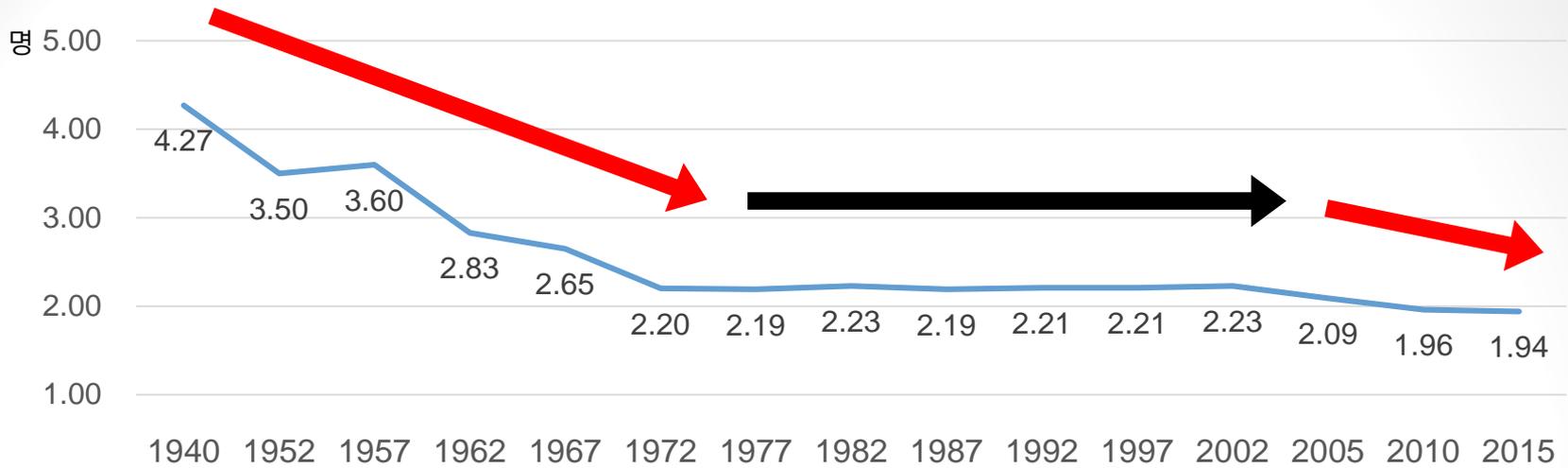
인구감소 실태



도시권과 지방과는 인구감소에 대한 실감의 정도 차가 있다.
또한 인구감소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정도에 비해 실감 정도에는 갭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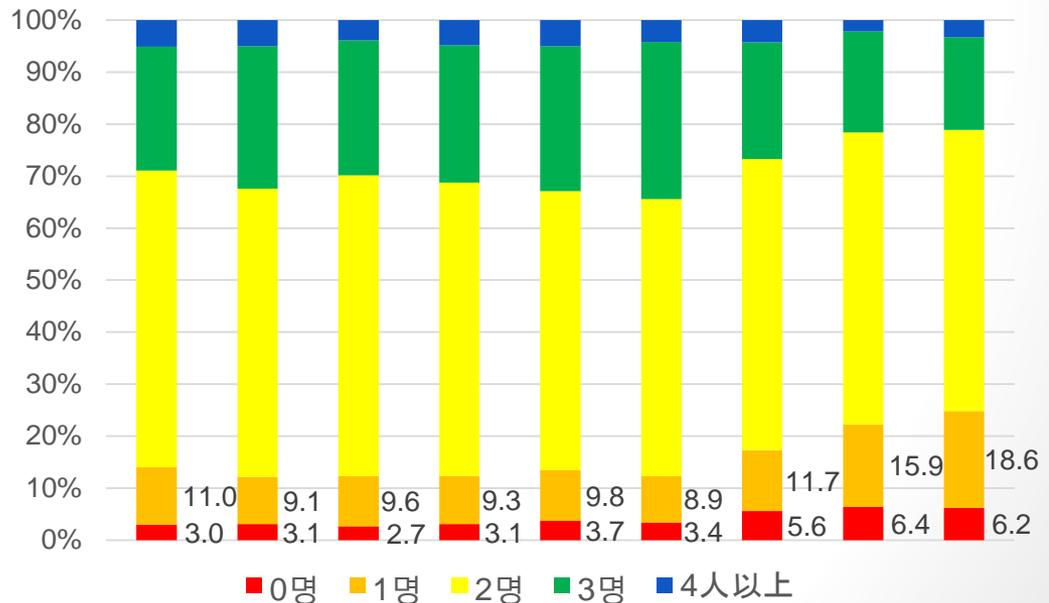
출처 : 국토교통성 “국민의식조사” (2015년2월, 인터넷 조사)
도시권이란 도교권(도쿄도·가나가와현·사이타마현·치바현), 나고야권은(아이치현·기후현·미에현), 오사카권은(오사카부·효고현·교토부·나라현)을 가르키며 지방이란 그 외의 도와 현을 의미함

완결출생아수(부부의 최종적인 출생 아동수)



완결출생아수란, 결혼 경과년수가 15~19년인 부부의 평균출생아동 수이며, 부부의 최종적인 평균출생아동수라고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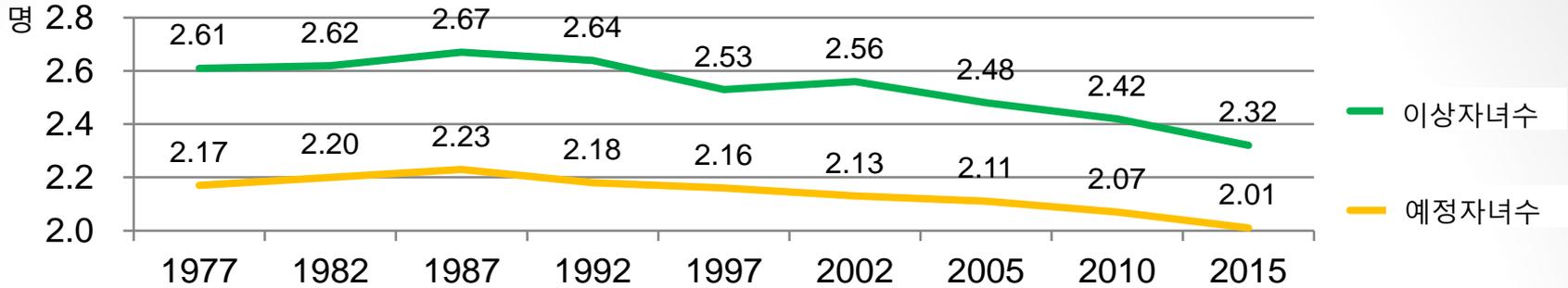
전후 크게 저하된 후 1972년부터 2002년에 걸쳐 일정수준에서 안정되었으나 그 후 다소 감소세이다.



출생 아동수 의 분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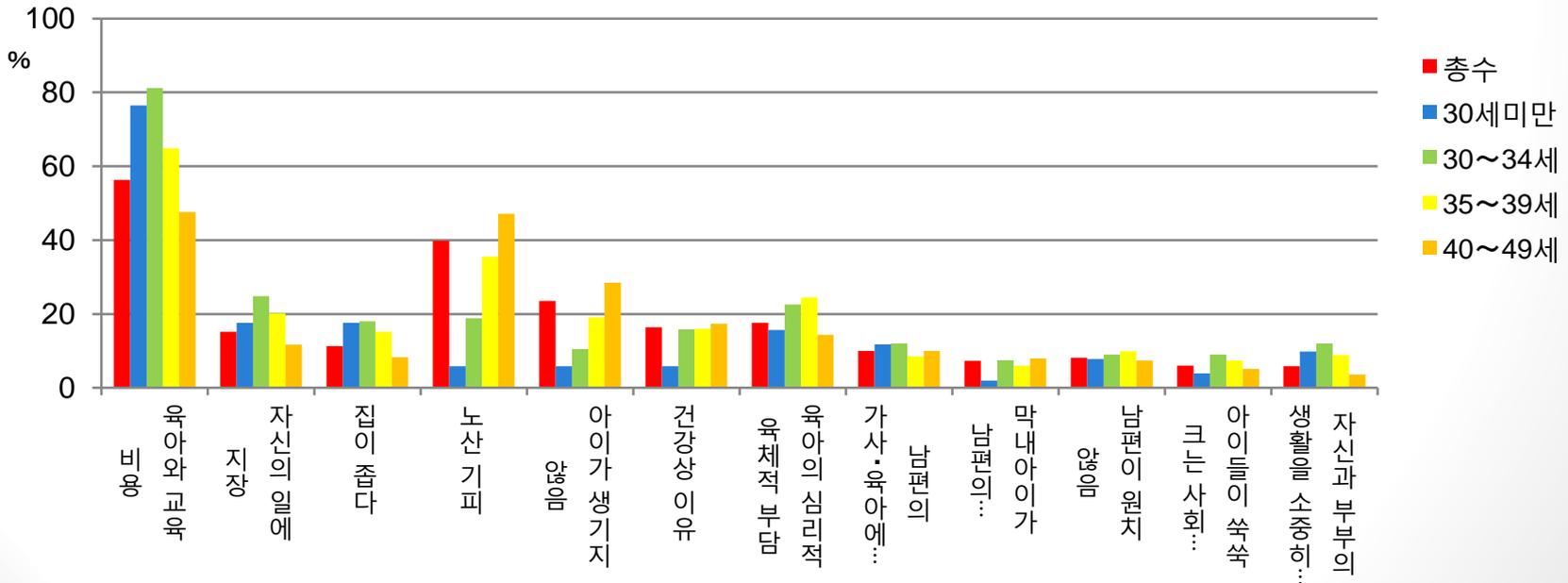
출처: 사· 인· 연"제15회 출생동향기본조사" (2015년)

부부의 이상적인 자녀수와 예정자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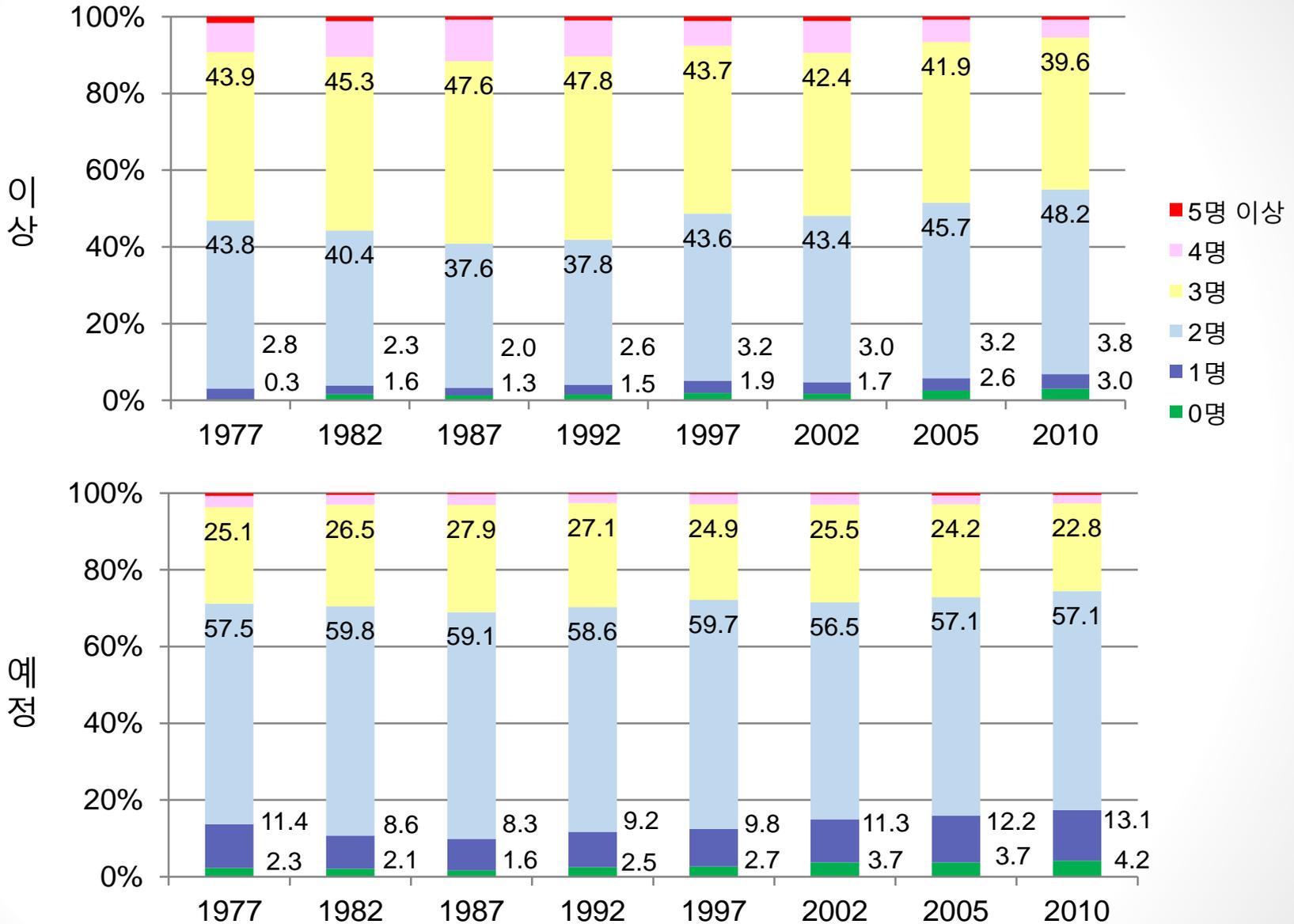
예정자녀수가 이상자녀수를 밑도는 부부 전체의 30.3%

그 이유? (복수응답)



출처: 사·인·연"제15회 출생동향기본조사" (2015년)

이상자녀수·예정자녀수 모두 0명과 1명의 부부가 증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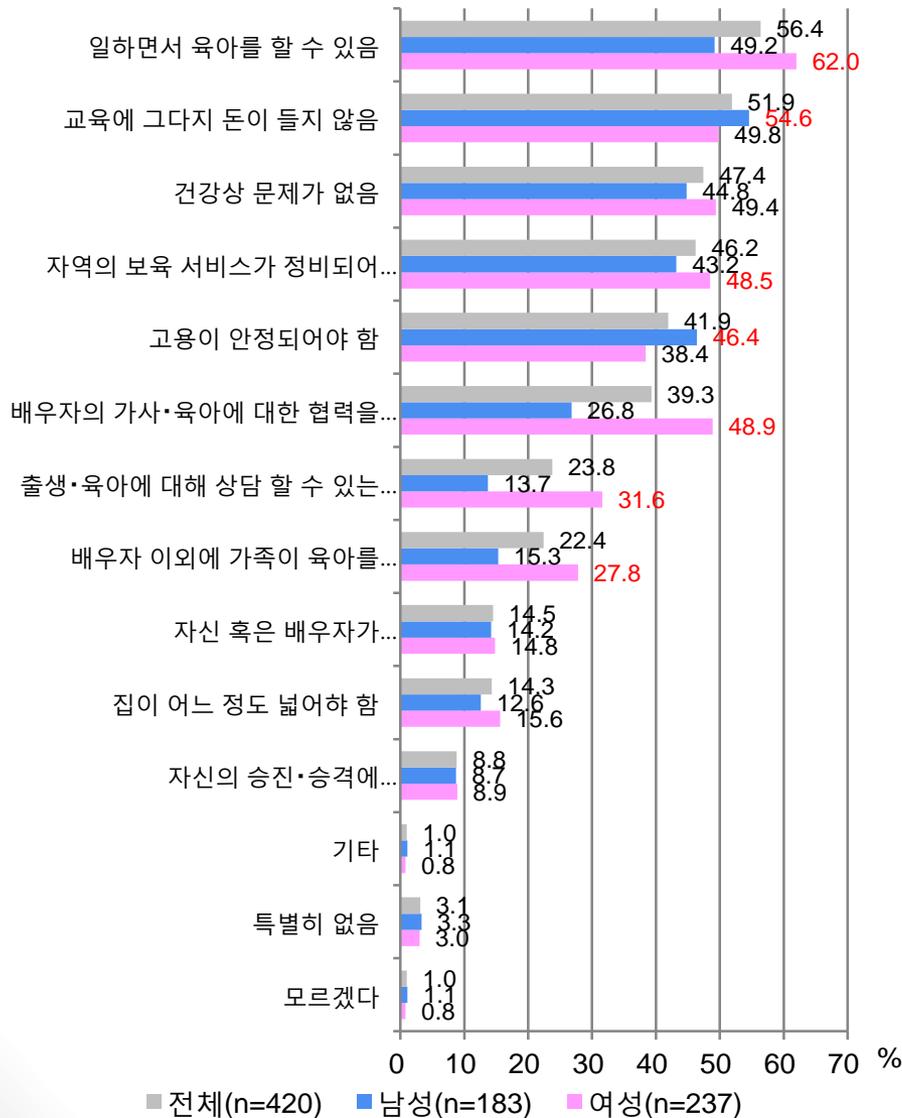


출처: 사·인·연"제14회 출생동향기본조사"(2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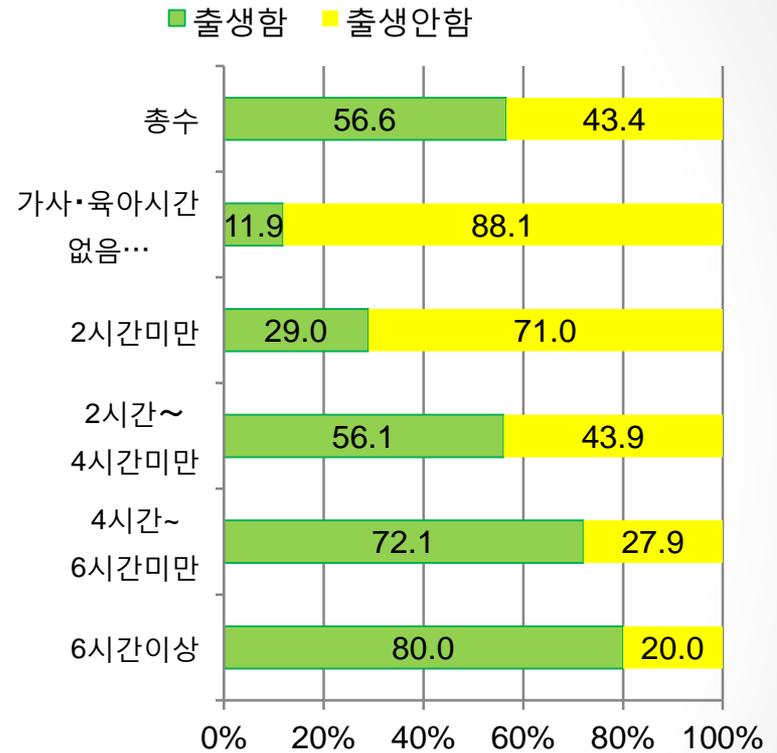
※제15차 조사결과는 미계재

배우자(부)의 협력과 자녀 출생 관계

향후, 아이를 낳을 경우의 조건(20~49세, 유배우자, 복수응답)



남편의 휴일 가사·육아시간과 둘째 이후의 출생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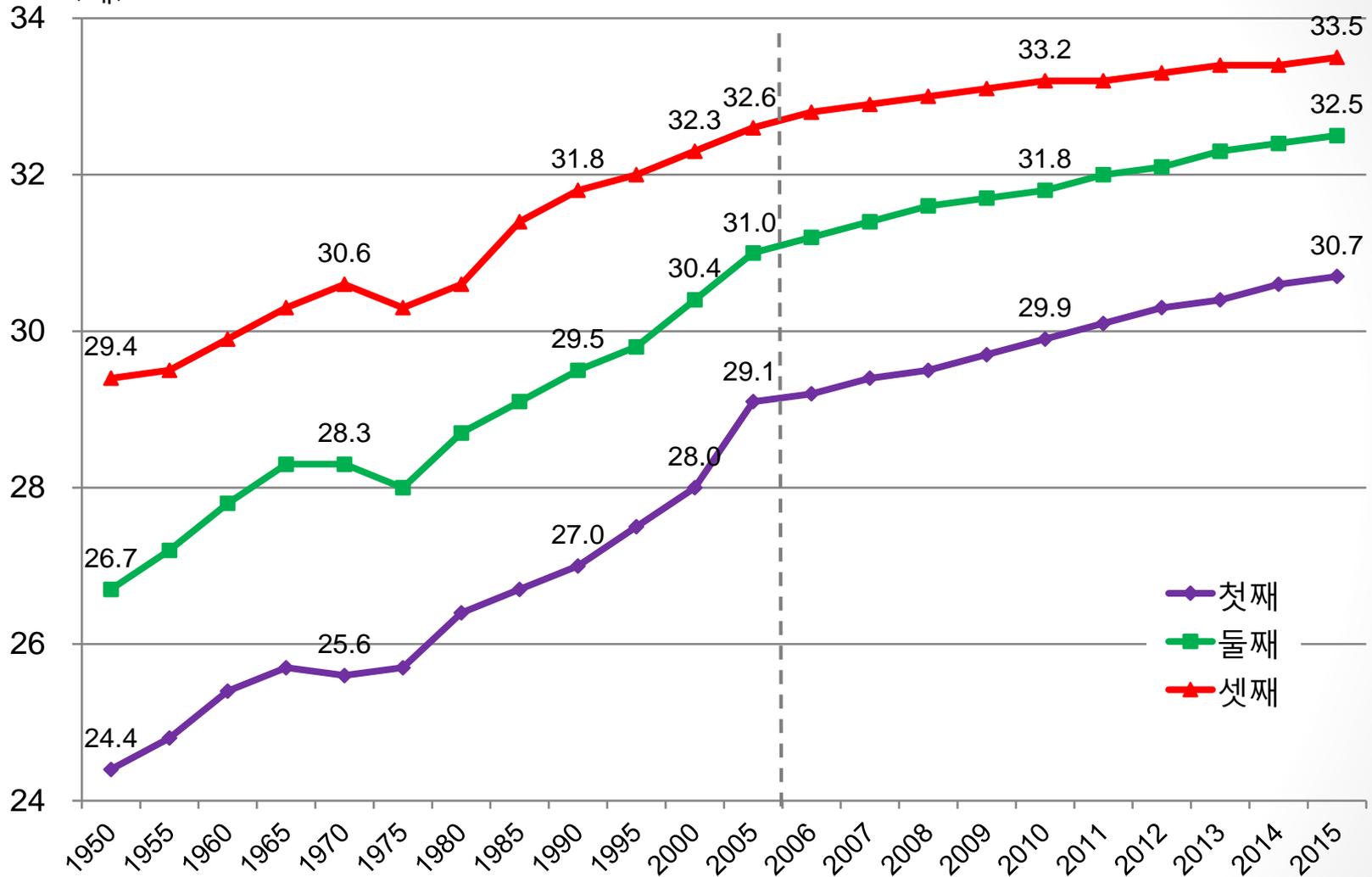
※ 2002년에 20~34세였던 사람을 대상으로 2013년 시점까지 11년간 둘째 이후의 출생 상황

출처: 후생노동성 제12차 21세기 성년자종단조사(2002년 성년자) (2013년)

출처: 내각부 “2013년 가정과 지역의 육아에 관한 의식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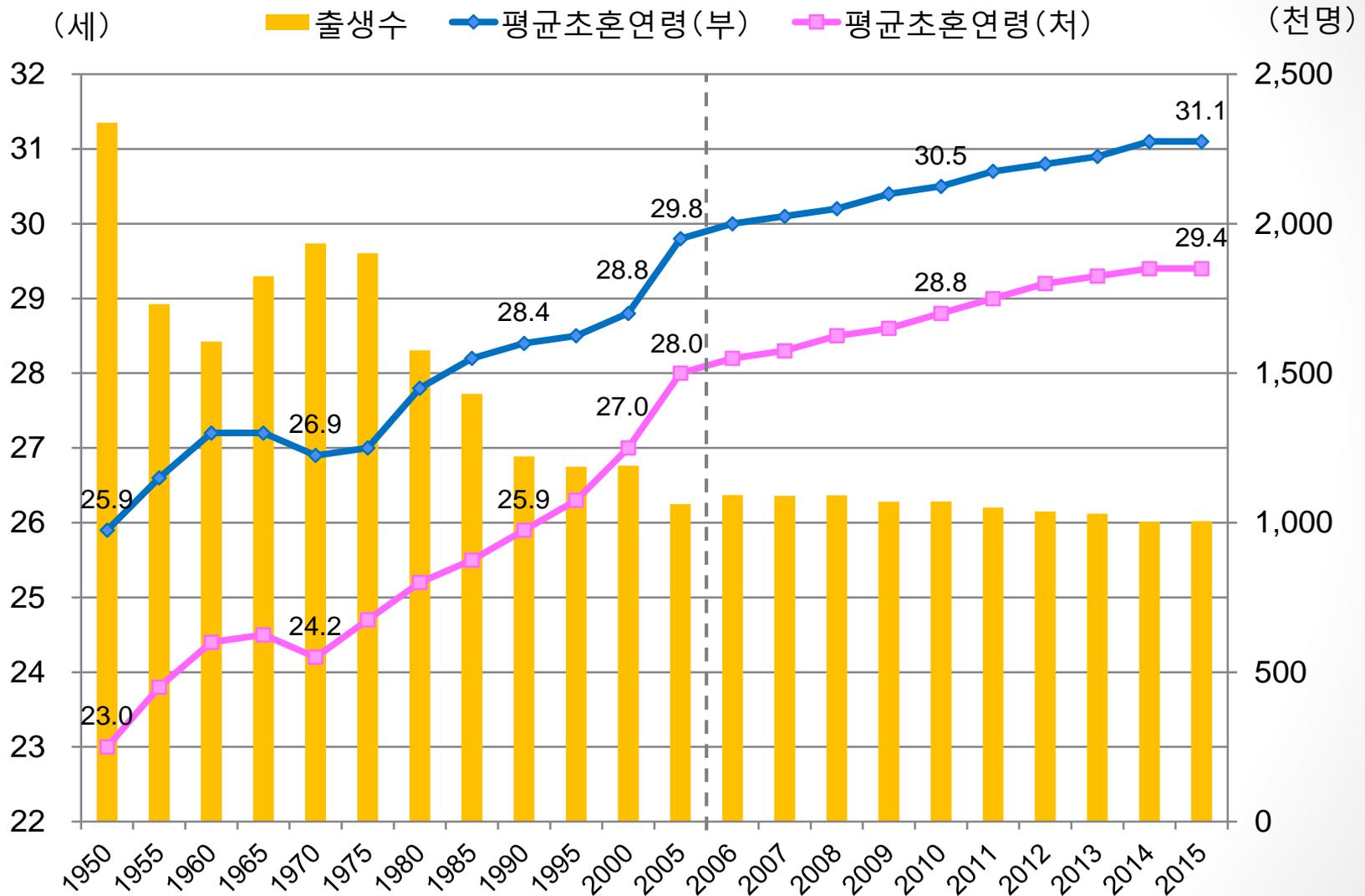
평균출생연령(모) 추이

(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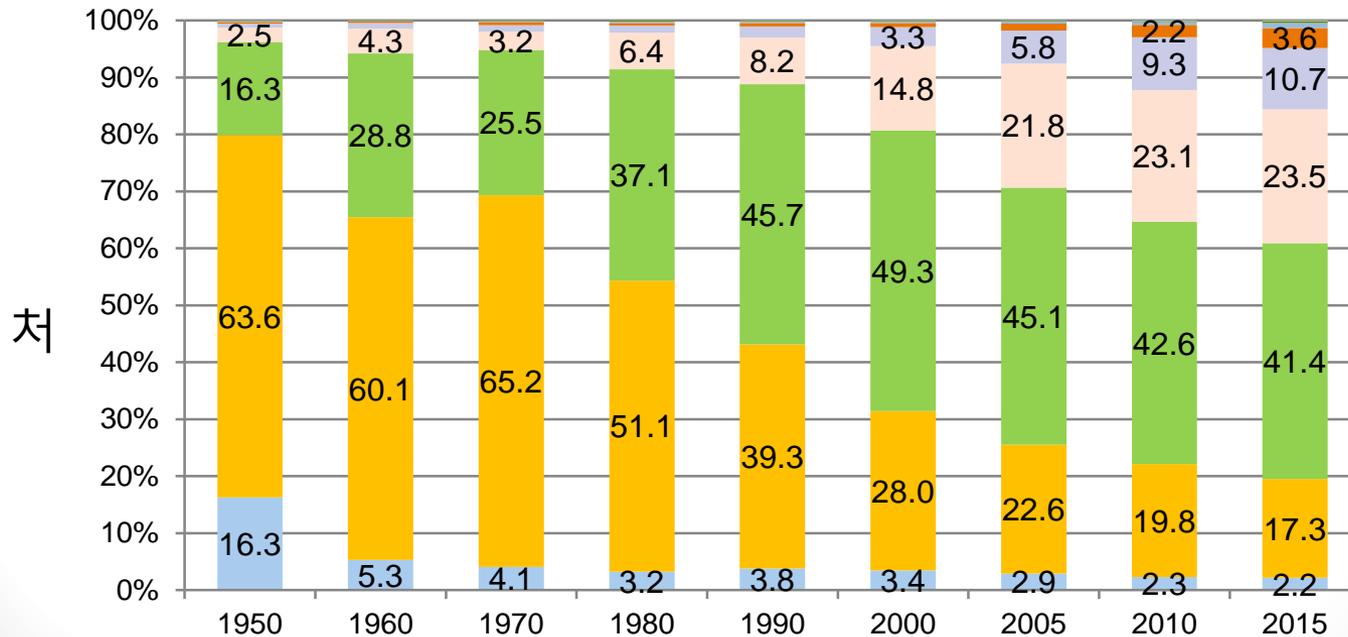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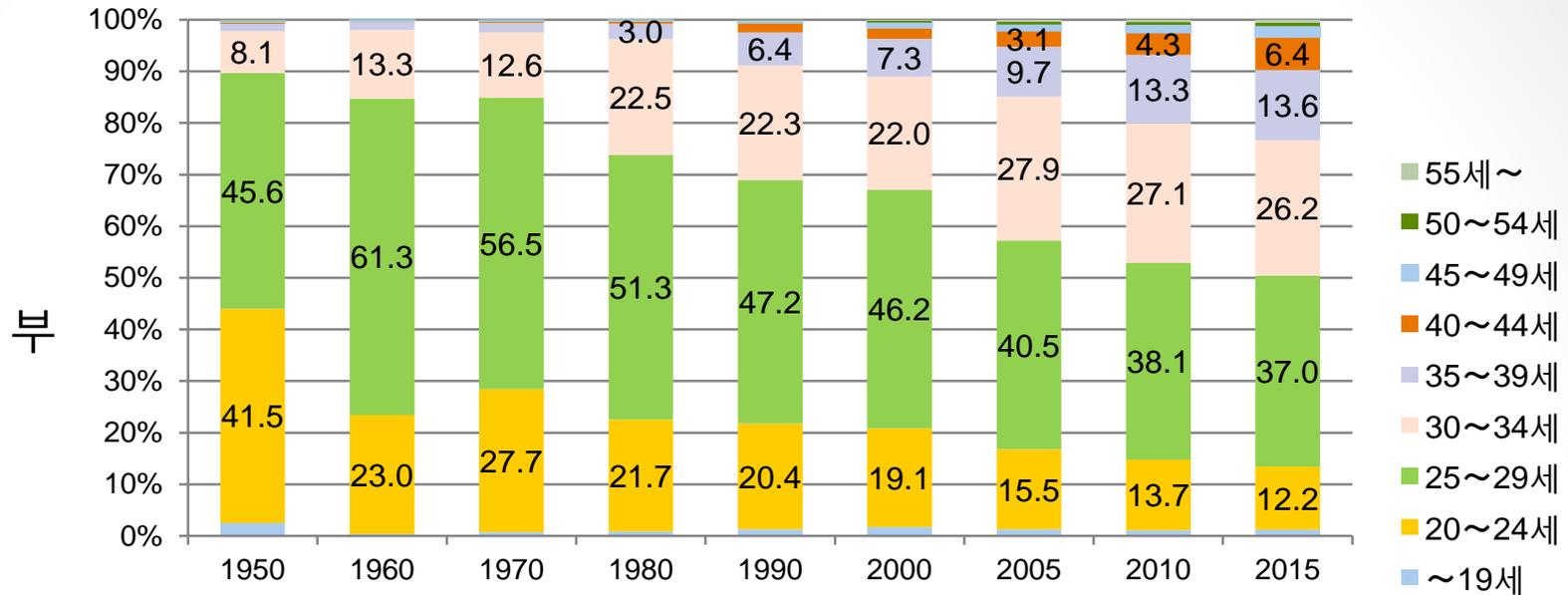
출처: 후생노동성 “인구동태통계”

평균초혼연령 추이



출처: 후생노동성 "인구동태통계"

초혼자의 연령별 비율 추이



출처: 후생노동성
"인구동태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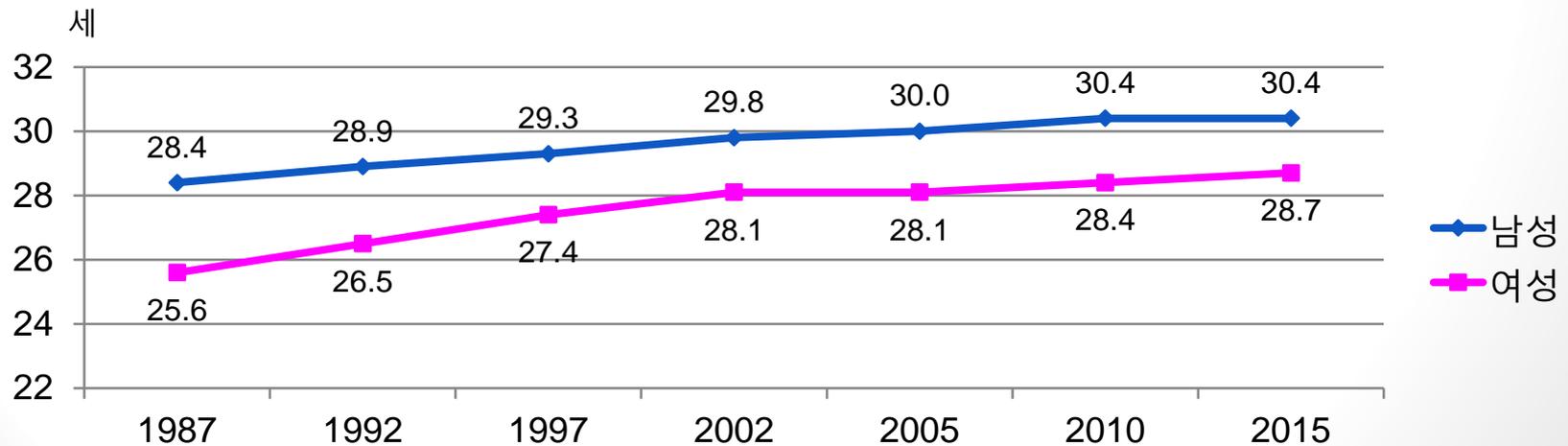
결혼에 대한 의사 “평생결혼할 생각이 없다”는 젊은이가 증가

(%)

		1987	1992	1997	2002	2005	2010	2015
남성	언젠가는 결혼할 생각이다	91.8	90.0	85.9	87.0	87.0	86.3	85.7
	평생 결혼할 생각이 없다	4.5	4.9	6.3	5.4	7.1	9.4	12.0
	모르겠다	3.7	5.1	7.8	7.7	5.9	4.3	2.3
여성	언젠가는 결혼할 생각이다	92.9	90.2	89.1	88.3	90.0	89.4	89.3
	평생 결혼할 생각이 없다	4.6	5.2	4.9	5.0	5.6	6.8	8.0
	모르겠다	2.5	4.6	6.0	6.7	4.3	3.8	2.7

결혼을 희망하는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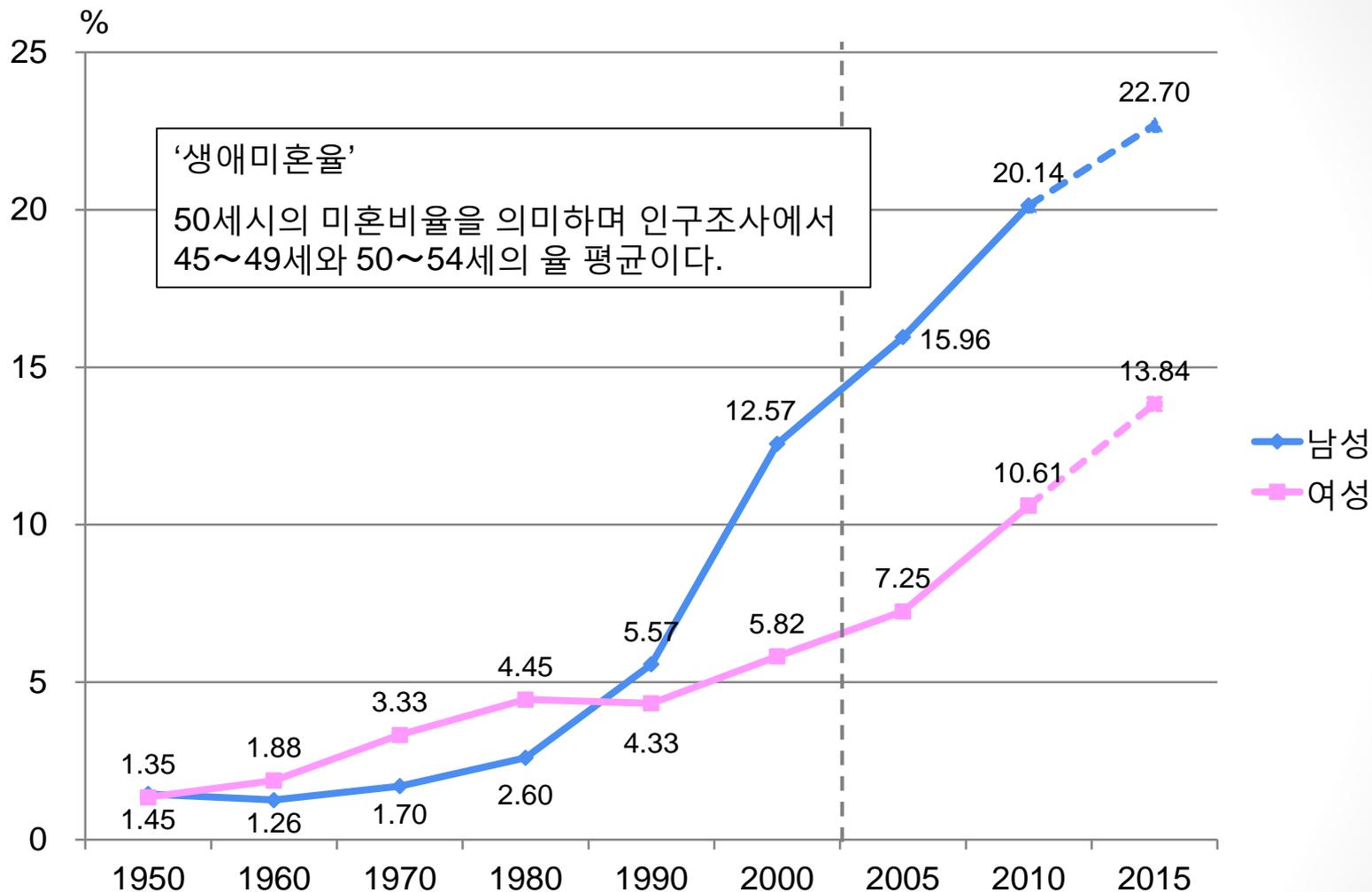
평균희망 결혼연령은 상승해 왔으나 최근에는 주춤?



※ 대상: 위, 아래 모두 18~34세의 미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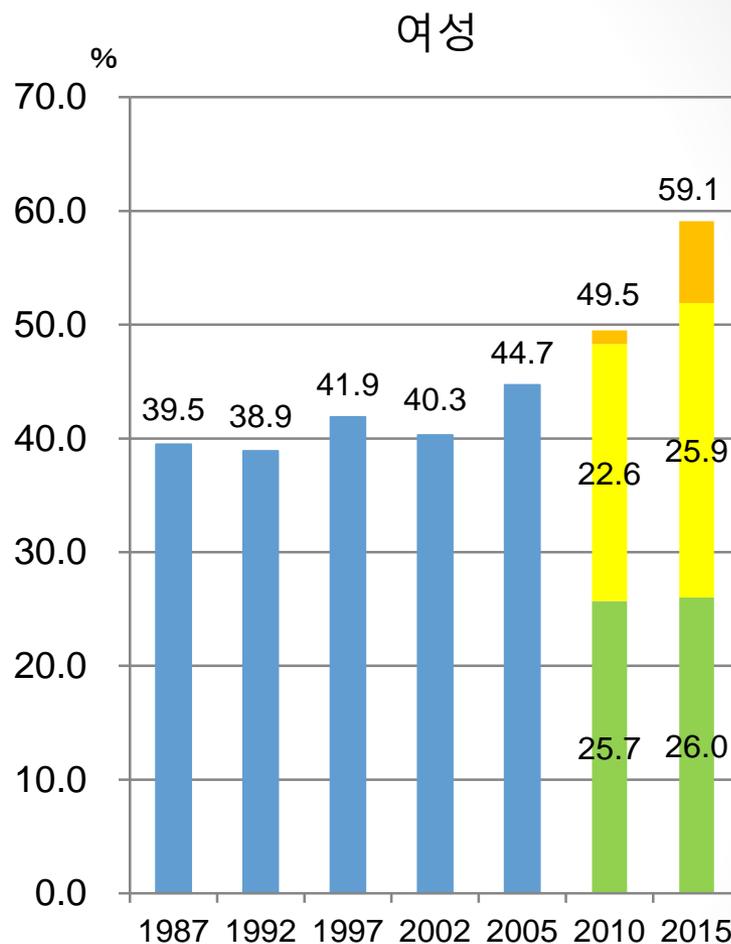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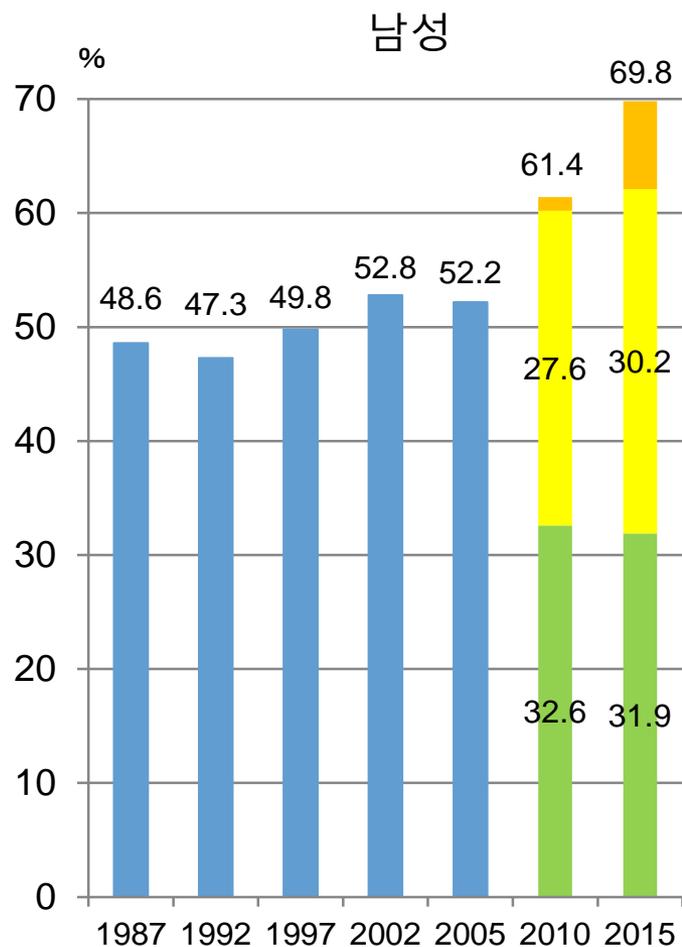
출처: 사·인·연 “제15회 출생동향기본조사” (2015년)

생애미혼율 추이



출처: 사·인·연 “인구통계자료집”
단, 2015년 수치는 인구조사결과를 토대로 본인이 추산

이성교제상대가 없는 미혼자(18세~34세)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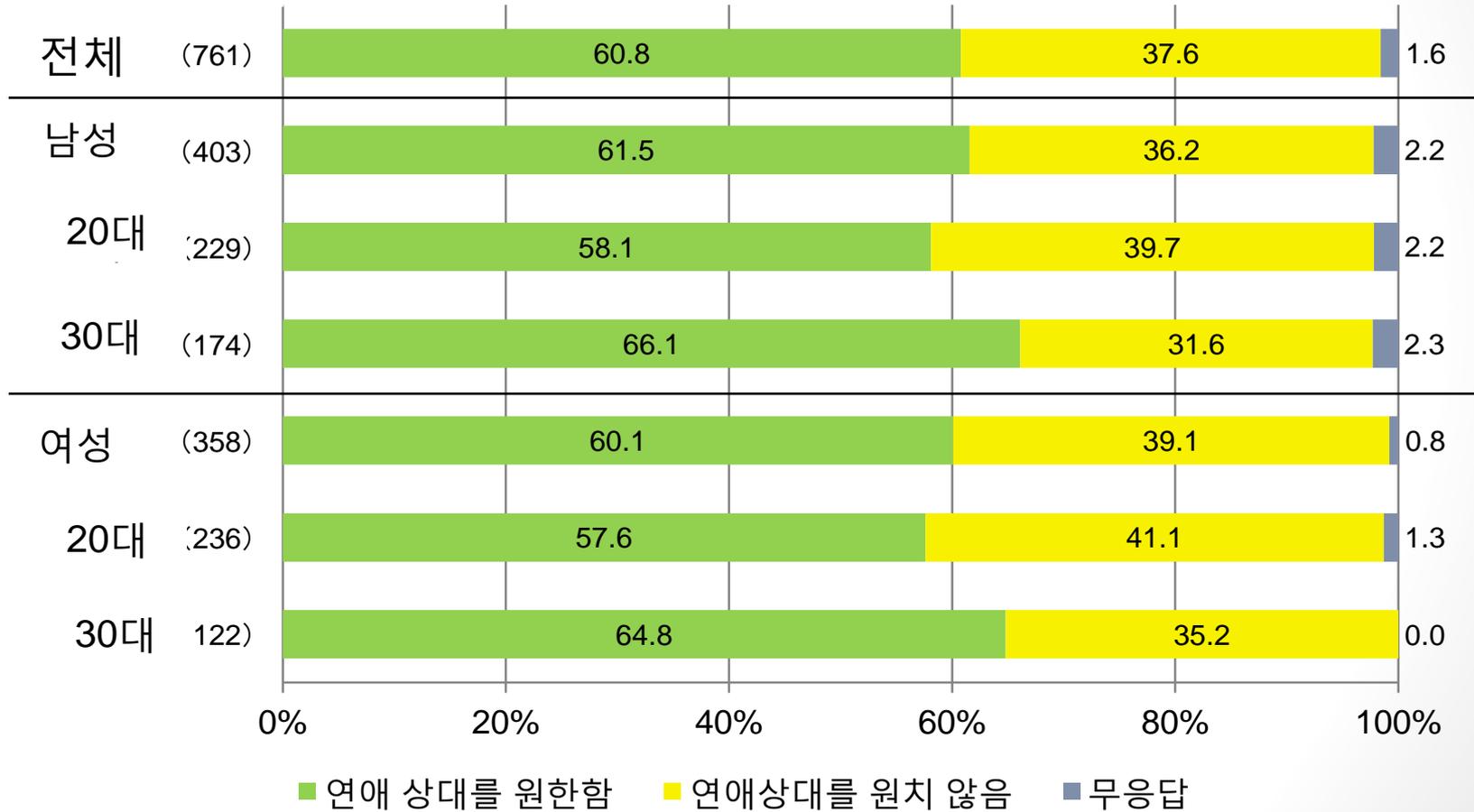
- 교제 희망
- 교제 미희망
- 모르겠음

출처: 사·인·연"제15회 출생동향기본조사"
(2015년)

※ 2005년 이전 조사에는 내역이 없음

40%의 젊은이가 연애 상대가 필요 없다고 함 갖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연애하는게 귀찮아서”

질문: 이성교제 상대를 갖고 싶나요?(미혼자, 현재 이성교제 상대가 없는 사람)



출처: 내각부 “2016년 결혼·가족형성에 관한 의식조사”

질문: 현재 연애상대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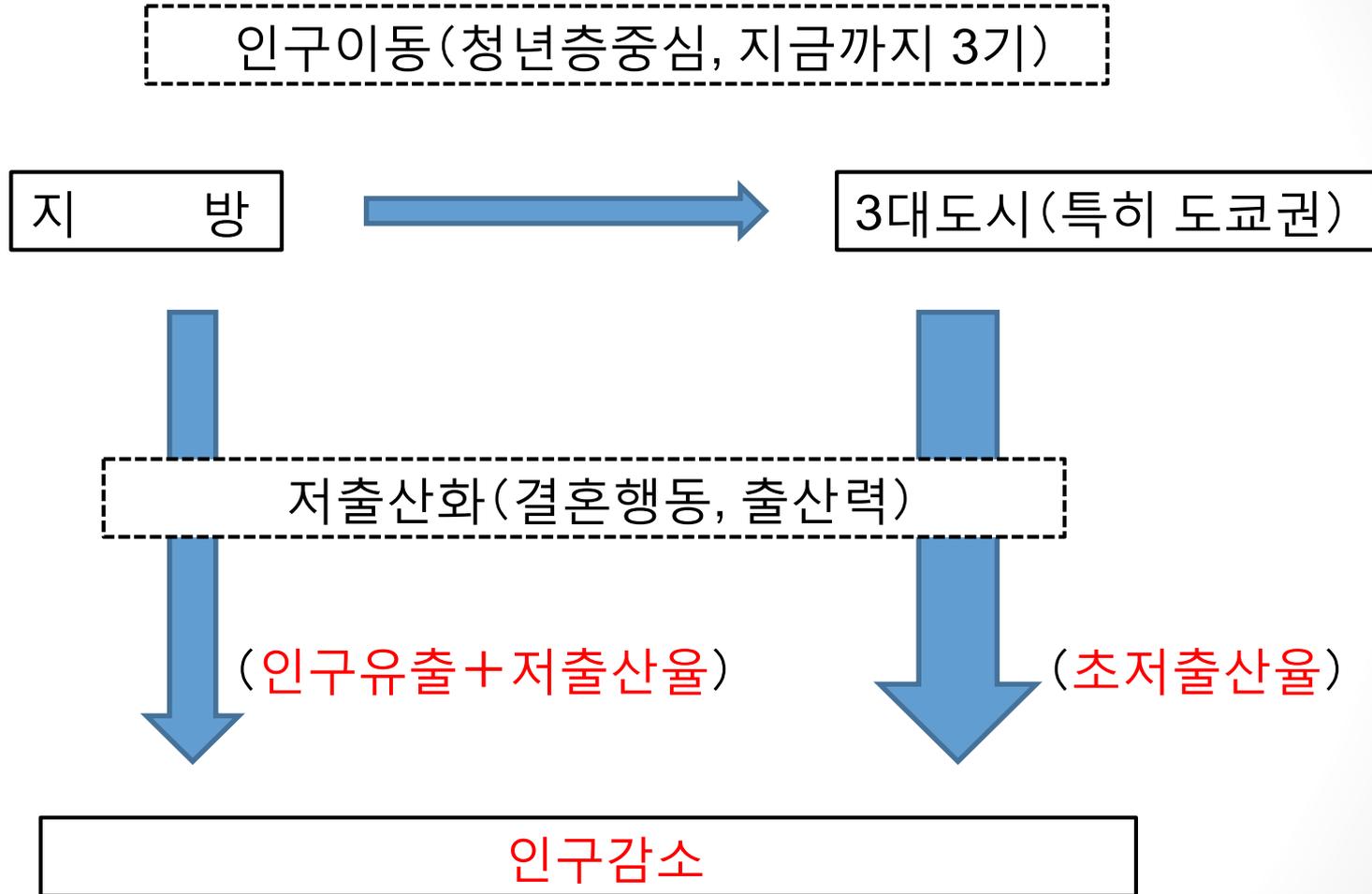
N		일과 공부에 주력하고 싶다	자신의 취미에 관심을 갖고 싶다	친구와 보내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싶다	과거 연애에 실패했다	연애가 귀찮다	연애에 흥미가 없다	남과 연인으로 교제하는 것이 두렵다	기타	무응답
전 체	(286)	32.9	45.1	15.4	4.5	46.2	28.0	12.9	10.5	2.4
남 성	(146)	34.2	47.3	14.4	4.8	47.3	25.3	8.9	10.3	1.4
20대	(91)	42.9	51.6	20.9	3.3	47.3	22.0	7.7	6.6	2.2
30대	(55)	20.0	40.0	3.6	7.3	47.3	30.9	10.9	16.4	0.0
여 성	(140)	31.4	42.9	16.4	4.3	45.0	30.7	17.1	10.7	3.6
20대	(97)	33.0	49.5	18.6	5.2	42.3	30.9	18.6	8.2	4.1
30대	(43)	27.9	27.9	11.6	2.3	51.2	30.2	14.0	16.3	2.3

1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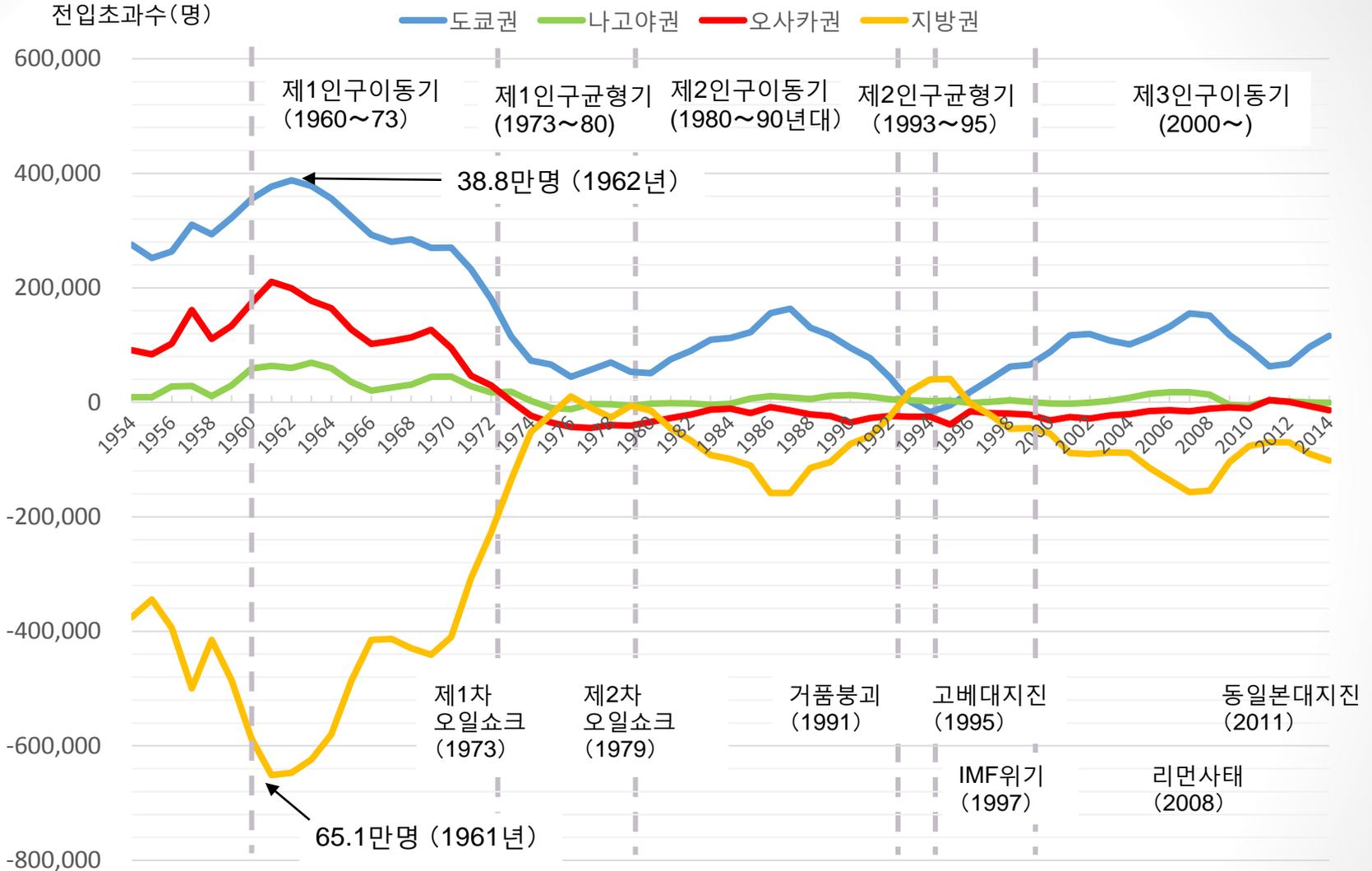
2위

3위

인구감소의 요인은 저출산과 더불어 젊은이의 대도시부로의 유입에 있다



인구이동추이



총무성 '주민기본대장 인구이동보고서'에 따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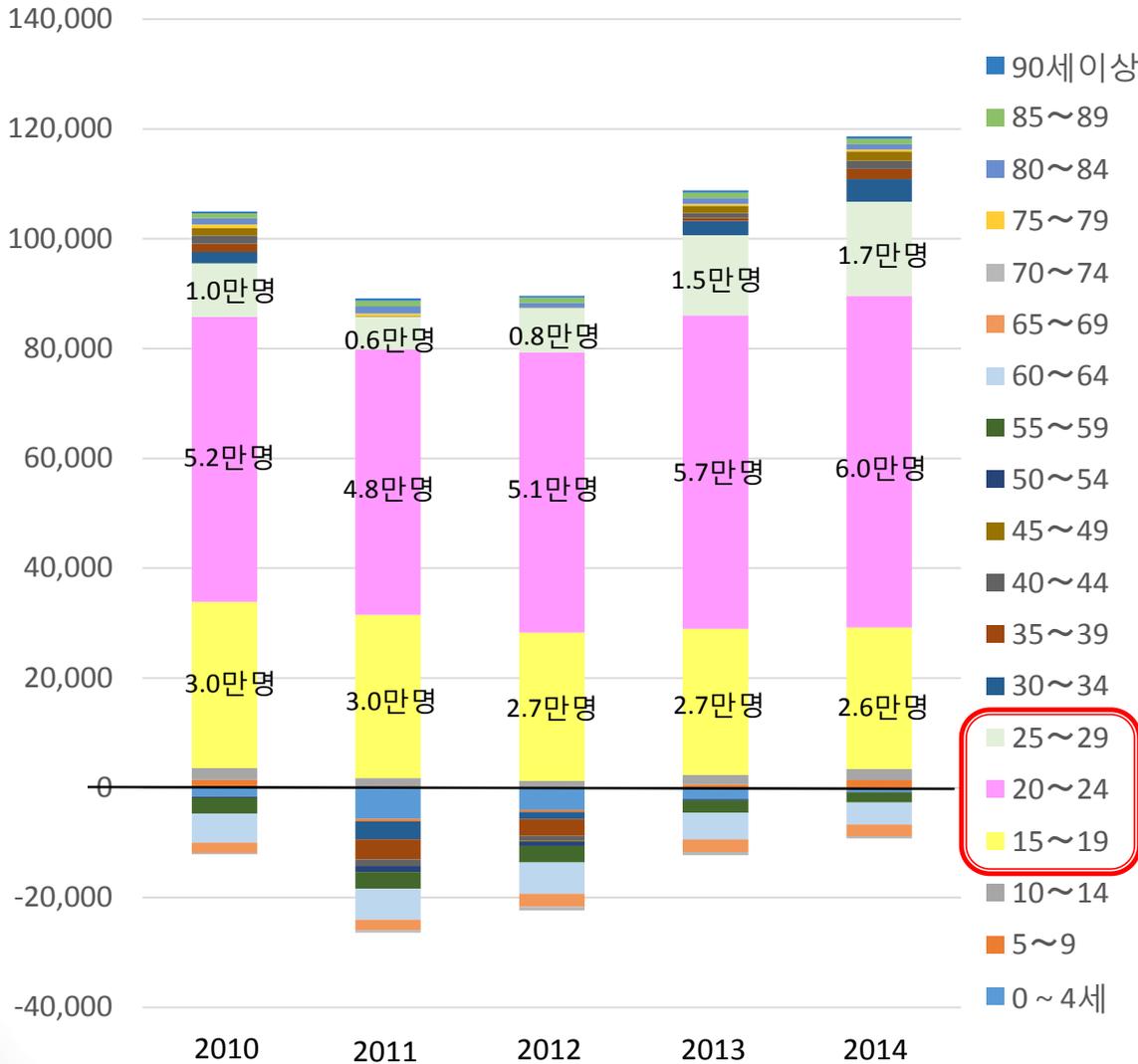
도쿄권: 도쿄도, 가나가와현, 사이타마현, 치바현
 나고야권: 아이치현, 기후현, 미에현
 오사카권: 오사카부, 효고현, 교토부, 나라현

지방권: 도쿄도, 나고야현, 오사카권 이외의 지역

시기 구분은 내각부 제1차 "선택하는 미래" 위원회(2014년1월30일)의 마스다 위원의 제출 자료에 따름

도쿄권으로의 전입

도쿄권의 연령계층별 전출입 상황



총무성 "주민기본대장인구이동보고" 2010년~2013년에 따름

도도부현별 출생률



후생노동성 "2013 인구동태통계 (확정수)개요"에 따름

정부의 대응 상황

- 1990년 “1.57쇼크”
1989년의 합계특수출산률이 1966년의 1.58를 밑돌음
- 1995~1999년 엔젤플랜 (관련 4장관 합의)
저출산의 원인: 만혼화, 부부의 출생력 저하
저출산의 배경: ①여성의 사회진출과 육아·일을 양립하기 힘들 ②육아의 심리적·육체적 부담 ③주택상황 ④교육비 등 육아비용의 증가
“긴급보육대책 등 5개년사업” 1995~99년
저연령아 보육·연장 보육·일시적 보육의 내실화,
지역 육아 지원 센터의 정비 등
재원: 약360억엔(국비 약180억엔)
- 1999년 저출산대책추진기본방침
저출산의 주된 요인과 배경: 미혼율의 상승이며, 배경으로는 결혼관의 변화와 더불어 육아·일 양립의 부담감과 육아 자체의 부담감 증대
- 2000~2004년 신 엔젤플랜 (관련 6장관 합의)
보육 등 육아 지원 서비스의 내실화, 교유환경의 정비, 보자보건의료, 교육환경, 주거 정비 등에 대해 구체적인 목표와 실시계획을 결정
(예) 저연령아 보육: 58만명→68만명, 연장보육 : 7,000군데→10,000군데 등

- 2003년 차세대육성지원대책추진법 제정
지방공공단체·사업주는 차세대육성지원대책을 위한 행동계획을 책정, 실시
당초 2015년도까지 시한입법, 10년간 연장하여 2025년도까지
- 2003년 저출산사회대책기본법 제정 (의원입법)
고용환경 정비, 보육서비스 등의 내실화, 지역사회의 육아 지원체제의 정비 등
기본적 시책에 대해 규정
- 2004년 저출산사회대책대강
3가지 시점, 4가지 중점과제, 28가지 행동을 제시, 대략 5년 후를 목표로 재검토
2005~2009년 자녀·육아 응원 플랜
보육사업 중심에서 청년 자립·교육, 근무방식에 대한 재검토 등을 포함한
폭넓은 플랜으로 4가지 중점과제별로 대략 10년 후의 모습과 5년간의 구체적 시책·
목표를 제시.
시정촌이 책정중인 차세대 육성지원 행동계획도 참고하여 수치목표를 설정
- 2005년 처음으로 출생수 < 사망수 로 (출생수, 합계특수출생률이 과거최저)
- 2006년 “새로운 저출산대책에 대해”
“기존 대책만으로는 저출산의 흐름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드릴 필요가 있다”는 인식
①자녀 성장에 맞게 종합적으로 자녀 지원책을 강구
②근무방식에 대한 개혁이 필요
구체적인 시책은 2007년도 예산편성에서 검토

- 2007년 “자녀와 가족을 응원하는 일본” 중점전략
 - ①일과 생활의 조화 추진, ②포괄적인 차세대육성지원의 틀을 구축
- 2008년 신대기아동제로작전 (후생노동성)
 - 보육서비스와 방과후 아동클럽의 양 확대(10년 후 목표를 설정)와 질 보장

(2009년9월~ 민주당정권)

- 2010년~2014년 자녀·육아 비전
 - 저출산사회대책기본법에 근거한 대강으로 결정
 - 정책의 4대축, 12가지 주요시책, 그 아래 구체적 내용으로 99가지 대응
 - 수치 목표예 : 인가보육원 215만명→241만명
 - 그 중 저연령아 75만명→102만명
 - 방과후 아동클럽 81만명→111만명
 - 차세대인증마크 취득기업수 652기업→2,000기업
- 2012년 자녀·육아지원법 등 통과
 - 자녀·육아 지원제도의 도입으로

(2012년12월~ 자민당정권)

- 2013~2017년 대기아동해소가속화플랜
 - 5년간 40만명분의 보육 수용처를 확보, 대기아동 해소를 2년간 앞당김
 - 2015년에 재검토, 또한 추가로 50만명분 확대 목표

- 2013년 저출산 위기 돌파를 위한 긴급대책
 “육아 지원”과 “근무방식 개혁”에 “결혼·임신·출산지원”을 추가한 3개의 화살 (3대축)
- 2014년~2019년 방과후 자녀 종합 플랜
 방과후 아동클럽을 약 30만 명분 정비, 그 중 약 80%를 초등학교에서 실시
 지자체는 정비 목적 등을 차세대육성지원대책추진법에 의한 행동계획에 기재
- 2014년 마을·사람·일 종합전략 (2015년에 개정)
 4개의 기본목표 중 하나로 “젊은 세대의 결혼·출산·육아 희망을 실현”
 2020년까지 달성해야 할 “중요업적평가지수(KPI)”를 설정하여 성과를 검증
 → 첫째출산전후의 여성의 유지취업률 55% (2010년 38%)
 남성의 육아휴직 취득률 13% (2014년 2.30%)
 육아와 교육에 돈이 너무 들기 때문에” 이상적인 자녀 수를 갖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 저하 (2010년 60.4%)
- 2015~2019년 신 저출산사회대책대강
 “육아지원시책”, “남녀의 근무방식 개혁”과 더불어
 “젊은 연령에서의 결혼·출산의 희망 실현” (결혼에 대한 대응 지원)
 “다자녀세대 대한 한 층 더 깊은 배려”(부담경감과 우대조치)도 중점과제로
 → 남성의 배우자의 출산직후의 휴가취득률 80%
 결혼·임신·출산·육아의 각 단계에 대응한 종합적인 대책을 실시하고 있는 지자체 수 70%이상 (2014년 14%·243시구정촌)
 육아지원패스포트 등 사업에 대한 협찬점포수 44만점포 (2010년11월 22만점포)

- 2015년도 자녀·육아 지원 신제도 본격시행

2012년 통과된 자녀·육아지원법 등의 관련3법에 의한

유아 교육, 보육, 지역의 자녀·육아 지원의 질·양의 확충을 종합적으로 추진

포인트

- ① 인증 어린이집·보육원·유치원을 통한 공통 급여 (시설형 급여) 및 소규모 보육 등에 대한 급여(지역형보육급여)

시설형 : 공통의 재정지원 프레임

지역형 : 보육 소규모, 가정적, 거주방문형, 사업소 내

→ 도시부에서는 대기 아동 해소가 목적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지역의 육아 지원 기능 유지·확보

- ② 인증 어린이집 제도 개선

유아 보육원 연계형도, 허가·지도감독·재정조치는 유치원·보육원 각각

→ 단일 허가, 지도감독 단일화 “시설형 급여”에 재정지원 일원화

- ③ 지역 실정에 맞춘 자녀·육아 지원 내실화

이용자 지원 사업, 지역육아지원거점사업 등

- ④ 시정촌 실시주체

- ⑤ 사회 전체에 의한 비용부담

소비세율 인상분 중 0.7조엔을 포함 항구재원을 확보

지자체의 대응 상황

- 내각부 “전국지자체 (시구청촌)의 자녀·육아 지원시책에 관한 조사”
 2012년10월 조사
 대상 : 전국 시정촌 및 특별구(1,742단체)
 응답 : 1,031단체(유효회수율 59.2%)
 내용 : 자녀시책전반에 대해, 지역 자녀·육아 지원사업에 대해, 특색 있는
 또한 선진적인 대응·사업 등을 조사
 결과 : 특색 있는 혹은 선진적인 대응·사업이 기재되었던 시구청촌 314
 지역 자녀·육아지원사업(자녀·육아지원법이 규정하는 13사업)상황

대응·사업 등	지자체수
지역 육아 지원거점사업	234
일시 탁아 사업	79
유아가정 전세대 방문조사	225
패밀리·서포트·센터 사업	124
방과후아동건전육성사업(방과후아동클럽)	180
임신건강진사	149
이용자지원사업	95
등	

- 일반사단 법인 이주·교류추진기구(JOIN) “저출산대책지자체 실태조사”

2014년 5월 조사

대상 : 동 기구회원지자체(1,102단체)

응답 : 308건(시정촌:295 현:13=응답수가 적기에 참고치)

내용 : “결혼, 임신, 출산의 꿈임 없는 지원”에 대한 실태를 파악

결과

① 결혼지원, 출산, 육아, 정주시책 실시율(%)

	전체	시정촌	현(참고치)
1 계몽·교육·시티프로모션 사업 (기업, 지역주민, 광역프로모션 등)	15.7	14.3	46.2
2 혼인활동지원사업 (혼인활동, 커플유치, 프로포즈 지원 등)	42.8	41.3	76.9
3 혼인, 거식지원 등 지역경제 업 사업	6.5	6.8	0
4 신혼세대지원사업	12.7	12.6	15.4
5 육아지원사업	68.0	67.6	76.9

→ 결혼지원사업 실시율도 40%를 초과

②저출산대책에 “가장 필요하다” 여겨지는 대응, 유효하다고 여겨지는 대응(%)

	필요			유효		
	전체	시정촌	현(참고치)	전체	시정촌	현(참고치)
1 계몽·교육사업 (기업용과 지역주민용 등)	2.0	2.0	0	0.9	1.0	0
2 결혼활동지원사업 (결혼활동, 커플유치, 프로포즈 지원 등)	8.8	8.2	23.1	11.4	11.4	9.1
3 혼인, 예식지원등 지역경제업사업	0.3	0.3	0	1.4	1.5	0
4 신혼세대지원사업	1.3	1.4	0	14.5	13.9	27.3
5 육아지원사업	28.8	30.0	0	20.0	21.1	0
6 청년층에 대한 시티브랜드 시책 (주택지원, PR활동)	9.2	9.6	0	1.4	1.4	0
7 고용	15.4	16.0	0	7.7	8.1	0
기타	11.4	10.2	38.5	15.9	14.4	45.5
판단할 수 없음	—	—	—	26.8	27.3	18.2

→ “필요”응답의 “기타”에서 대부분은 “개별지원책이 아닌 결혼지원부터 육아, 고용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응답

- 전국시장회 “저출산대책·자녀지원에 관한 시 단독사업 및 부처 이기주의 행정을 배제한 시 사업에 관한 앙케이트”

2014년 11~12월 조사

대상 : 전시(813단체)

응답 : 256시

내용 : 저출산대책·자녀지원에 관한 단독사업 실시상황 파악

“단독사업”이란 시의 재량에 따라 실시 여부를 판단 할 수 있는 사업

- 시 단독 사업

- 실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나 시가 단독으로 추가 하는 등 하는 사업

- 국가 등 보조금 등은 있으나 실시가 의무화되지 않은 사업 등

결과 (일부반영. “실시율(%)”은 응답시(256시)가 모수(母数))

① 실시상황

실시지자체 수	실시율(%)
---------	--------

1 파트너형지원

결혼활동지원	결혼활동 이벤트개최, 조성	112	43.8
	결혼상담실시	45	17.6
결혼지원	결혼축하금·품 지급	19	7.4
	신혼세대에 대한 경제적 지원	14	5.5

(계속)

2 출산지원

임산부의료비 등	의료비 조성(통원)	30	11.7
	의료비 조성(입원)	31	12.1
	건강검진 조성	183	71.5
불임치료비 등	치료비 조성	158	61.7
	검사비 조성	50	19.5
임산부에 대한 보건 지도		197	77.0
출산을 앞둔 보호자에 대한 육아 등 지도		173	67.6
출산 축하금·품의 지급		60	23.4

3 자녀 지원

영유아·어린이 의료비 조성(통원)		246	96.1
	중학교까지	124	48.4
영유아·어린이 의료비 조성(입원)		239	93.4
	중학교까지	166	64.8
지역의 자녀 일시 탁아 서비스 실시, 조성		112	43.8
육아상담, 세대별 방문		225	87.9
육아정보	육아 정보지 발행	167	65.2
	인터넷·메일에 의한 정보 발신	133	52.0
육아용품의 구입비 조성, 물품 지급		23	9.0

(계속)

4 가정지원

보호자 등에 대한 가정교육지원	66	25.8
육아세대의 공공시설이용료의 감면	11	4.3
자녀 가족 우대 실시(쇼핑 등)	26	10.2
영아 동승 자전거 대출·구입비 조성	18	7.0
카시트 대출·구입비 조성	35	13.7

5 보육 등 지원

보육원	보육료 감면(시 비용 추가)	213	83.2
	연장보육·24시간 보육등 감소시간 연장	147	57.4
	사립 보육원에 대한 운영비 등 보조	192	75.0
	통원 관련 버스 운행·교통비 보조	46	18.0
인가외보육시설	인가외 보육시설 보육료 조성	69	27.0
	인가외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비 등 보조	114	44.5
유치원	취원 권장비 추가, 보육비 조성	119	46.5
	사립 유치원에 대한 운영비 등 보조	154	60.2
	통원 관련 버스 운행·교통비 조성	35	13.7
방과후아동클럽	대상학년확대	112	43.8
	이용료 감면	152	59.4

(계속)

6 주택지원

주택소개, 시영주택에 대한 우선 입주	86	33.6
주택 취득비 보조	35	13.7
주택월세보조	25	9.8
주택 리폼에 대한 보조	46	18.0
빈집 개보수 보조	19	7.4

7 고용장 지원

워크 라이프 밸런스 강습회 개최, 사업소 등에 대한 강사파견	69	27.0
육아 우량기업에 대한 표창 등	24	9.4

② 과제

재원·비용

재원 확보가 어려움·불충분 → 약 70% 단체가 지적
페널티로서 국고보조금의 감액조치

※지자체에 의한 의료비 조성(현물급여방식)에 대해
이로 인한 의료비 증가분은 해당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국민건강보험 국고부담금 등이 감액 조정된다

사업실시

맨 파워·전문인재 확보, 인재육성

연계

청사 내 부국 연계, 종합조정체제 구축

서비스 내용·수준

지자체 간 경쟁 우려

지자체 간 밸런스 확보·서비스 격차

효과 검증이 필요·곤란

우라야스시의 사례

- 우라야스시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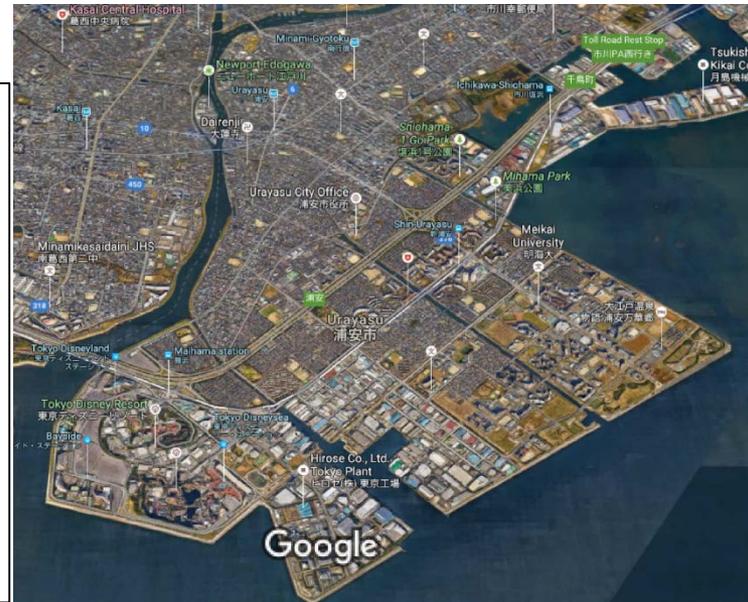


인구: 164,024명 (2015년 인구총조사)
 2010년 대비 $\Delta 0.52\%$ [전국 $\Delta 0.75\%$]

구성비: 15세 미만 23,336명 (14.3%) [12.6%]
 15~64세 113,576명 (69.8%) [60.7%]
 65세 이상 25,836명 (15.9%) [2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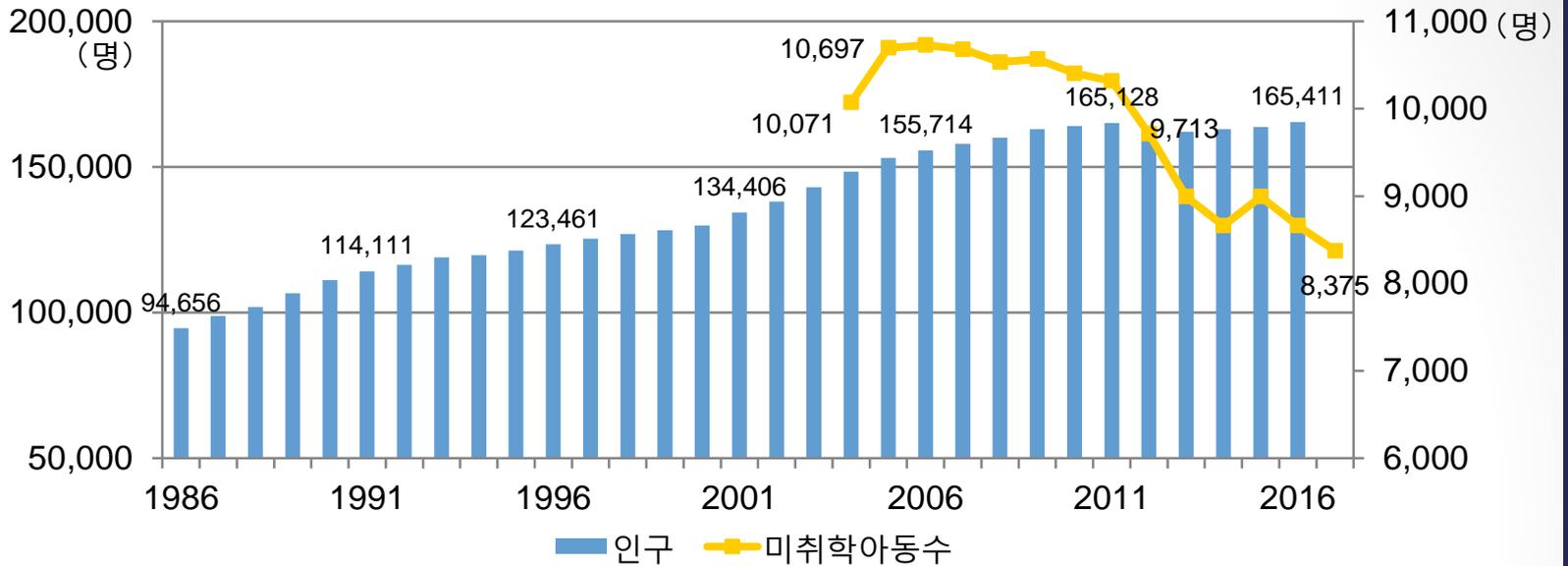
평균연령: 40.5세 [46.4세]

출생수: 1,274명 (2015년 인구동태통계)
 사망수: 841명 (2015년 인구동태통계)
 면적: 16.98km² (~1968년 4.43km²) (우라야스시HP)
 재정력 지수: 1.48 (2014년, 시정촌 제6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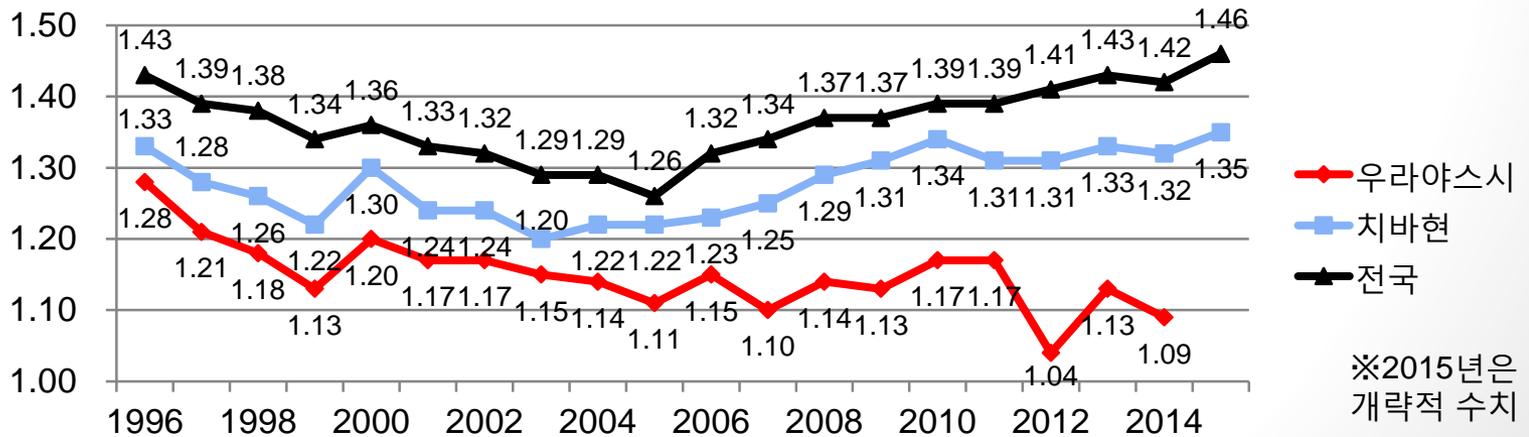


지도 : CraftMAP 사진 : Google Map

• 인구와 미취학 아동수의 추이



• 합계특수출생률 추이



우라야스시의 자녀와 육아가정 관련 과제와 대책 (우라야스시 자료 인용)

- 육아 세대의 90%가 핵가족세대
- 편모, 편부 세대 증가
- 만혼·노산 경향
- 높은 미혼률



- 육아관련 상담자 부재
- 양육 부모의 육체적·정신적 불안감
-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

이에...

- 결혼적령기, 출산적령기에 대한 정보 알림
- 결혼 생활지원
- 임신 출산부터 육아에 걸친 끊임없는 지원

목표는 ...

우라야스판 네우볼라 구축

(참고) 네우볼라란...

- 네우볼라(neuvola)는 어드바이스(neuvo)의 장이라는 의미에서 임신기부터 취학전까지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은 물론 부모, 형제 가족전체의 심신에 대한 건강 서포트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핀란드에서는 임신 징후가 있는 시점에서 우선 네우볼라에 검진을 하러 갑니다. 네우볼라는 모든 지자체에 있으며 검진은 무료, 전국의 네우볼라의 수는 850군데 입니다. 임신기간중은 6-11회, 출산 후 도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 할 때까지 정기적으로 통원하고 보건사나 조산사 등 프로가 어드바이스를 합니다. 검진에서는 모자의 의료체크 뿐만 아니라 개별적으로 출산과 육아, 가정에 관한 다양한 사항을 상담할 수 있으며, 1회 면담은 30분에서 1시간 정도 심도 있게 진행됩니다. 또한 담당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임신기에서 자녀가 초등학생이 될 때까지 같은 담당자(통칭 “네우볼라”아주머니)가 지속적으로 서포트를 하기 때문에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잘 구축할 수 있으며, 문제의 조기 발견, 예방, 조기지원 등이 가능합니다. 의료기관의 창구 역할도 있어 출산입원을 위한 병원 지정, 의료기관과 전문가도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 또한 이용자 데이터는 50년간 저장되기 때문에 과거 이력부터 부모지원에 도움을 드리고 있으며 의료기관과의 연계에 활용하거나 효율적으로 자녀와 그 가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부모에 대한 정신적 지원, 부친의 육아추진이 네우볼라의 중요한 역할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 학대와 부부간 DV의 예방적 지원 역할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네우볼라의 일본판 도입이 미에현의 나바리시와 **치바현의 우라야스시** 등 전국 시정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후생노동성도 핀란드를 모델로 한 임신, 출산, 육아의 포괄적 거점정비를 각 자치단체에 권장하고 있습니다.

출처: 핀란드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발췌

<http://www.finland.or.jp/public/default.aspx?nodeid=49799&contentlan=23&culture=ja-JP>

저출산대책기금 (2014년도 창설, 30억엔)

- 저출산대책에 유효한 사업을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지속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 대상사업은 2014년도부터 순차적 확대
- 2016년도 대상사업은 아래와 같음 (예산액: 4억9,266만엔)

우라야스 결혼활동지원 프로젝트사업	육아지원패스포트사업
이용자지원사업(모자보건형)	육아포털사이트 “MY우라야스” 운영
산전·산후 서포트 사업	“노조미노 마치”육아 살롱지원사업
불임치료연구지원사업보조금	나눔체험 “아가와 놀자”
특정불임치료 등 조성사업	이유를 묻지 않는 단시간 일시 탁아사업
남성불임 치료비 등 조성사업	보육사 자격취득지원 보조금
불육증 치료비 조성사업	보육료 감면제도 실시
산후조리사업	사립보육원 시설정비비 등 보조금
어린이예방접종 스케줄작성지원사업	셋째이후 학교 급식비 감도제도(신규)
어린이프로젝트사업	(이상 19가지 사업)

우라야스 결혼 활동 응원 프로젝트 사업

- 육아세대를 중심으로 지역에서 활약하는 시민과 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우라야스 결혼 활동 응원 프로젝트 실행위원회”를 설치
- 실시사업
만남의 장을 창출해 내기 위한 결혼활동 파티 개최
결혼부터 출산, 육아까지의 정보를 게재한 특별편집책자 발행
- 참가단체
청년회의소, 상공회의소, 관광컨벤션센터협회,
현지호텔
- 최근의 개최실적 “결혼활동 in 우라야스 리조트”
2014년12월21일(평일)
참가자 191명(남 94명, 여 97명) 41쌍 탄생
2015년 2월22일(평일)
참가자 214명(남 106명,
여 108명) 34쌍 탄생
2015년 11월23일(휴일)
2016년 02월11일(휴일)
2016년 11월23일(휴일)(예정)



불임치료연구지원사업 보조금

- 정자·난자·난소 동결 보존기술을 연구하는 준텐도 대학의학부 부속 우라야스병원에 대해 시가 사업보조(3,000만엔×3년간)
- 실질적으로는 나이가 들어 불임되는 것을 피할 목적으로 장래 출산에 대비하고자 하는 건강한 여성의 난자를 동결 보존, 임신 가능한 상태가 되었을 때 활용
- 보험 적용과 같은 부담으로 이용 가능 하도록 함
- “오히려 고령출산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 첫 난자 동결 사안은 2016년 5월

산후조리사업

- 출산의료기관을 퇴원, 심신 모두 불안정해지기 쉬운 시기에 전문직(조산사 등)이 산모 케어, 유아 케어, 육아 서포트 등 세심한 지원을 실시
- 산모와 신생아의 애착형성 촉진과 시간을 들여 몸조리를 하면서 육아 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
- 지원자가 주변에 없고 육아 불안이 강한 산모가 대상
- 사업타입

숙박형 : 병원 개인실의 빈 침상을 이용, 원칙 7일 이내
1박 2일로 개인 부담은 6,000엔, 이후1일 당3,000엔

당일치기형: 호텔·조산원을 이용, 호텔은 원칙 1회만, 조산원은 원칙 7회까지 가능
(데이케어) 호텔은 1회 4,000엔, 조산원은 1회 1,600엔

- 실적 (2015년도. 숙박은 2군데, 당일치기는 호텔 1군데만 실시)
숙박 32명, 당일치기 110명 당일치기는 이용희망자가 많기에
2016년도 부터 내실화

어린이 프로젝트 사업

- 육아케어플랜 작성

육아 세대의 고민과 불안감, 고립감을 덜기 위해 대상이 되는 모든 보호자와 면담하여 자녀 성장 별 “육아 케어플랜”을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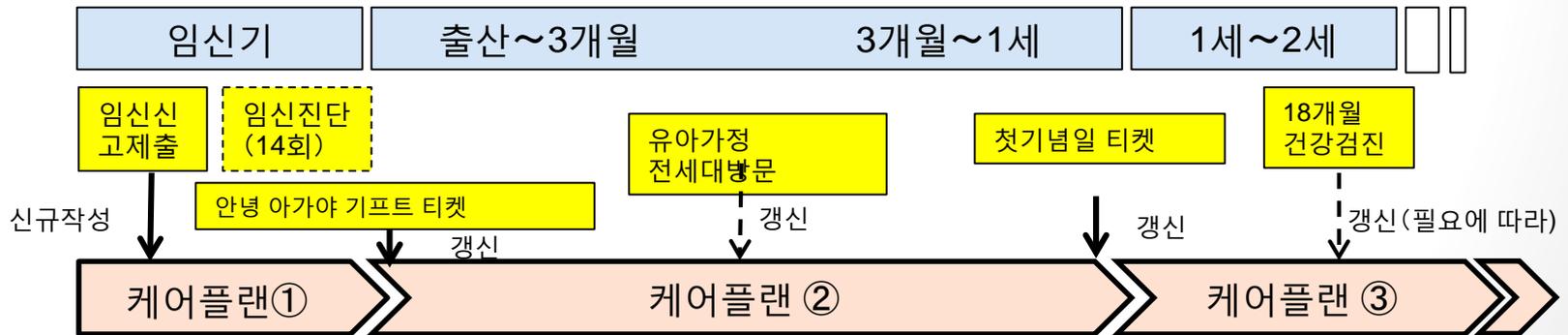
사업 담당자는 연수를 수강하고 수료한 “자녀 케어 매니저”와 보건사가 공동

1번째: 임신 신고시에 산모와 가족의 고민과 불안을 받아들임
출산까지 약 반년 정도의 케어플랜을 작성

2번째: 출산 전후에 아이가 돌이 될 때까지 약 1년 정도의 케어플랜 작성
취업희망 유무를 확인하여 지원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

3번째 돌 생일 이후부터 두 돌이 될 때까지의 약 1년 정도의 케어플랜 작성
유의사항은 2번째와 같음.

(사업이미지)



실적 (2015년도중)

임신기: 1,163건 출산전후: 1,383건 돌 전후: 890건

(계속)

- 안녕 아가야 기프트 티켓
- 첫 기념일 티켓

케어플랜 2번째 작성으로 “안녕 아가야 기프트” 및 “티켓”을 증정

기프트 : 마더스 백, 속옷, 양말 등의 의류

티켓 : 시내협찬사업자가 이용 할 수 있는 금액권 5,000엔분

케어플랜 3번째 작성으로 “첫 기념일 티켓”

(금액권 10,000엔분)을 증정



2016년생 대상 기프트
(해마다 디자인이 달라지기 때문에
같은 나이의 또래 아이들을 바로 알
수 있음)

어린이 네우볼라 개설

- 2016년 9월 5일 육아세대에 들러 “안심감” 조성을 도모하고 동시에 원활한 지원을 실현하기 위해 “모자보건”과 “육아지원”의 거점을 건강센터에 집약시킨 “어린이 네우볼라”를 개설.
- 주로 “어린이 케어플랜의 작성”을 실시.
어린이 네우볼라를 개설하여 3가지 플랜을 작성해 왔던 것이 건강센터 한 곳에서 가능해 짐.



사진출처: 우라야스시 홈페이지

<http://www.city.urayasu.lg.jp/kodomo/kosadate/shien/1013328/1010102.html>

<http://www.city.urayasu.lg.jp/kodomo/kosadate/shien/1015963.html>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your kind attention.